

# 태국 마히돈 대학 주최 2018 라뜨나까라 강독회(Ratnākara Reading) 참관기

박효진\*, 서정주\*\*, 함형석\*\*\*

여타의 고전어들과 마찬가지로 산스크리트는 하나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서로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지식인들의 일종의 공용어(*lingua franca*)였다. 지리적으로 다양한 “영어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영어들”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스크리트 또한 시대적, 지리적, 그리고 사용자의 지적 배경 등의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구분은 결코 확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게다가 한 문헌에 사용된 산스크리트는 언제나 그러한 구분을 가능케 하는 기준을 염두에 두고, 더 나아가 그러한 기준들을 활용하여 쓰여진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다시 말해, 자신이 연구하는 대상 문헌의 일차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문헌이 성립하게 된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알력들을 읽어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산스크리트들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도의 고전적인 학자상을 따라 개인적으로 “판디뜨”(pandita)가 됨을 목표로 한다면 모를까, 현대적인 학제에서는 특정한 분야의 전공자로 성장하는 것을 중시하기에, 다양한 맥락 속에서 사용된 산스크리트들 모두에 정통하는 것은 현대의 학자들에게 학문 활동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강독회”라 불리는, 종종 비공식적으로 개최되는 모임은,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의 전공에서 벗어나 자신이 익힌 “언어”와는 이질적인 언어들을 마주하게 하여 이와 같은 한계를 넘나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과정.

\*\* 서울대학교 철학과 동양철학전공 석사과정 수료.

\*\*\* 큐슈대학교(九州大學) 인도철학사연구실 연구원, The Robert H.N. Ho Family Foundation Postdoctoral Fellow.

제공한다. 필자 3인은 올해 2월말부터 3월말까지 태국에서 열린 한 산스크리트 강독회(Ratnākara Reading)에 참석하였고, 필자 각각의 경험을 토대로 한 “다양한 언어들”로 본 참관기를 작성해 보고자 한다.

라뜨나까라 강독회(Ratnākara Reading)<sup>1)</sup>는 불교 진흥을 위한 국제 비영리 기구인 켄제 재단(Khyentse Foundation)의 후원 하에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태국 방콕 인근의 살라야(Salaya)에 위치한 마히돈 대학(Mahidol University)에서 열리고 있는 강독 프로그램이다. 정확한 시기는 해마다 바뀌기는 하지만 대개 2-3월에 살라야의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다.<sup>2)</sup> 올해에는 2. 26~3. 22에 열렸으며, 8:30에서 11:30까지 오전에만 강독이 진행되었다. 참가자격은 따로 없지만 강독이라는 점에서 기초적인 산스크리트에 능숙할 것이 요구되므로, 대부분의 참가자는 박사 과정 이상이다. 따라서 초심자보다는 숙련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라뜨나까라 강독회”라는 모임의 이름 가운데 “라뜨나까라”(Ratnākara)는 11세기 인도의 불교 승려 라뜨나까라산띠(Ratnākaraśānti)를 지칭한다. 그의 지식에 감탄한 동시대의 사람들은 그를 “말세의 전지자全智者”(Kalikālasarvajña)라 불렀다. 태국에서 열리는 불교 문헌 강독 프로그램에 라뜨나까라산띠의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그가 동남아시아 불교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동남아시아의 불교 연구 진흥을 위해서 저명한 교수들을 여럿 초빙하여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과 강독을 진행한다. 불교 재단의 후원을 받고 불교 승려의 이름에서 프로그램 이름을 따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불교 문헌 강독 모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직 불교 문헌만을 읽는 것은 아니다. 불교 문헌을 주로 읽는 것은 사실이나, 올해의 경우처럼 불교 이외의 전통에 속한 문헌을 읽기도 한다.

이번 강독회는 나티에르(Jan Nattier), 브롱코스트(Johannes Bronkhorst), 아이작슨(Harunaga Isaacson) 교수가 각각 세 가지 문헌에 대한 강독을 진행하였다. 2월 21일에서 23일까지 이어진 Part I에서는 나티에르교수가 교수가 『辨沙王五願經』을 다루었으며, 2월 26일에서 3월 2일까지의 Part II에서는 브롱코스트 교수가 (흔히 『전철학강요』라고 번역되는) 『모든 철학적 체계들의 모음』(Sarvadarśanasamgraha)의 「빠니니 철학 체계」(Pāṇinidarśana) 챕터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3월 5일에서 3월 22일까지 열렸던 Part III에서는 아이작슨 교수가 즈냐나스리미트라(Jñānasrīmitra)의 저작 『유형상有形象 증명론』(Sākārasiddhiśāstra)의 「중(관) 입문」(Madhyamāvatāra)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챕터를 읽었

1) 직역하면, “보고(寶庫) 강독회” 정도가 될 것이다.

2) 2015년 2월, 2016년 5월, 2017년 3월에 라뜨나까라 강독회(Ratnākara Reading)가 있었다.

다. 올해는 이렇게 세 교수가 강독을 진행하였지만, 아이작슨 교수를 제외하고는 매년 초빙되는 교수가 바뀐다.

강독회는 한 달 이상 진행되었으므로 대부분의 참가자는 시간적인 문제로 인해 이를 모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세 교수가 서로 다른 문헌을 읽었기 때문에 이 중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문헌만을 선택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총 참여자 수는 40명이 넘었지만, 대다수가 부분적으로만 참석하였다. 필자 가운데 박효진, 서정주는 브롱코스트 교수와 아이작슨 교수가 진행한 Part II와 III 전체에 참석하였고 함형석은 Part III의 마지막 2주간 참석하였다. 따라서 본 참관기는 Part II와 III만을 대상으로 한다.

5일 간의 일정으로 Part II를 진행한 브롱코스트 교수는 현재 본인이 재직하였던 스위스 로잔 대학(University of Lausanne)의 명예교수로 있다. 그는 문법학에 대하여 박사 논문을 쓰기는 하였지만, 어떤 한 분야를 전공한다고 하기 어려울 만큼 방대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인도 사상에 대해 연구해 왔다. 그는 주로 빠니니나 빠탄잘리(Patañjali) 등으로 대표되는 초기 산스크리트 문법학 전통(Vyākaraṇa)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서도, Greater Magadha나 Buddhism in the Shadow of Brahmanism 등과 같은 불교에 관한 책들도 집필하였으며, 미망사(Mīmāṃsā)나 초기 바이세시카(Vaiśeṣika) 등의 인도철학에 대한 논문도 꾸준히 발표하였다.

이러한 방대한 주제에 대한 그의 관심 덕분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브롱코스트 교수의 글을 많이 읽어보았지만 실제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운이 좋게도 2월 25일 태국에 입국한 첫날에 연락이 닿아 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브롱코스트 교수와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책이나 논문으로만 보던 유명한 학자를 실제로 만난다는 기대감과 영어로 대화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었지만, 친절한 할아버지와 같이 맞이해 주셔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강독회에서 브롱코스트 교수는 자신의 주 관심사 중 하나인 문법학에 대한 문헌을 골라 읽었다. 바로 『모든 철학적 체계들의 모음』(이하, SDS로 약칭)의 「빠니니 철학 체계」라는 문헌이었다. 이 문헌은 베단따(Vedānta)의 입장에서 문법학에 대해 서술하였으므로, 불교를 전공하는 대부분의 참가자의 관심사에서 벗어났다. 그래서인지 브롱코스트 교수는 첫 시간에 이 문헌을 선택한 이유를 공들여 설명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많은 불교 학자들이 인도 문법학 전통을 몰라도 불교 연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불교는 인도 문법학 전통이라는 배경 위에서 발전하였으며, 따라서 불교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 문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무척 유

용하다. 브롱코스트 교수는 라뜨나까라 강독회에서 「빠니니 철학 체계」를 다름으로써 세계의 여러 불교 학자들에게 인도 문법학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려는 것처럼 보였다.

SDS는 14세기경 베단파 학파의 마다바(Mādhava)의 저작이라 알려진 문헌으로, 『모든 철학적 체계들의 모음』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당대에 알려진 모든 견해 혹은 사상들을 정리하여 모아 놓은 것이다. 이는 8세기 경 하리바드라(Haribhadra)가 지은 『여섯 가지 철학적 체계들의 모음』(Ṣaḍdarśanasamuccaya)와 마찬가지로 인도 지적 전통 각각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함께 자신이 속한 학파의 관점에서의 비판을 더해 작성하는 흔히 “독소그래피”(Doxography)라 불리는 계열의 문헌이다. 하지만 사상들 간의 우열을 가리지 않는 하리바드라와는 달리 마다바의 본 저작은 사상 간의 우열에 따른 위계를 세워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서술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는 불이론적 베단파(Advaita-Vedānta)의 사상을 제시한다. 그런 점에서 이 저작은 인도 특유의 ‘인클루시비즘’(Inclusivism)적 관점에서 서술된 힌두 독소그래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사진 1 브롱코스트 교수와의 점심식사

이러한 사상의 체계 속에서 이번 강독에서 읽었던 「빠니니 철학 체계」는 베단따, 요가(Yoga), 쟁카(Sāṅkhyā)의 바로 아래 단계, 즉 위에서 4번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빠니니 철학체계”라는 챕터의 제목 때문에 빠니니(Pāṇini, 약 기원전 6~5세기)의 『팔장론(八章論)(Aṣṭādhyāyī)』에 등장하는 산스크리트 형태론 등을 다룰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은 빠니니의 문법학이 아니라 빠탄잘리(Patañjali, 기원전 2세기)의 『팔장론에 대한 위대한 주석』(Mahābhāṣya), 바르뜨리하리(Bhartrhari, 약 5세기)의 『문장과 단어에 관한 책』(Vākyapadīya) 그리고 이들의 영향을 받은 문법철학이었다. 강독회에서는 『위대한 주석』(Mahābhāṣya)의 첫 번째 구절인 - 혹은 브롱코스트 교수가 주장하듯 까뜨야야나(Kātyāyana)의 첫 번째 바르뜨까(vārtika) 문장인 - “이제 ‘말’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된다”(atha śabdānuśāsanam)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논의의 과정에서 빠니니 이전 혹은 당대에도 논의되었던 바자빠야나(Vājapyāyana)와 비야디(Vyāḍi) 사이의 말의 대상에 대한 문제도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이 문헌에서는 빠탄잘리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고 바르뜨리하리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며 꾸마릴라(Kumārila, 약 7세기) 등의 미망사 학자들에 의해 비판받았던 ‘스포따’(sphoṭa) 이론이나, 『문장과 단어에 관한 책』의 제 1장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말과 브라흐만(Brahman)을 동일시하는 입장이 다루어지는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저자가 바르뜨리하리 이후의 문법학을 말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이번에 읽었던 SDS의 「빠니니 철학 체계」는 문법학에서 다루어진 구체적인 철학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는 강독을 따라가기가 버거웠다. 「빠니니 철학 체계」의 산스크리트 문장 자체는 해석하기 어렵지 않았지만, 문법학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전제로 하여 압축적으로 쓰였기에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편이었다. 브롱코스트 교수가 첫날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설명해주는 하였으나,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로 저자나 문헌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어서 문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또한 강독 중에 제공되는 설명조차 기본적인 문법학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소리와 말에 관심이 있어서 평소에 문법학이나 미망사 등을 공부한 편이라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었지만, 불교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강독에 어려움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

그래도 참석자 중에 인도 문법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학자가 여럿 있어서 강독하는 중에 활발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그렇지만 많은 참석자들이 이해에 어려움을 겪자 브롱코스트 교수는 참석자 중 한명인 교토대학(京都大學)의 안드레이 클레비노프(Andrey



Klebanov) 교수에게 바르뜨리하리의 『문장과 단어에 관한 책』의 일부를 강독하자고 요청하였고, 하루는 오전 강독을 마치고 오후에 추가적으로 강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주중 그리고 오전에만 강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자유시간이 많고 방콕도 멀지 않아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러한 기대는 태국의 기후와 강독의 난이도 때문에 어긋나게 되었다. 습하지는 않았지만 열대지방이라 2월인데도 기온이 매우 높았고 한국에 비해 태양이 더 뜨거웠다. 첫 주는 숙소에서 학교까지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걸어 다녀서 숙소로 돌아오면 곧바로 지쳐 쓰러졌고, 녹음한 것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날의 강독을 복습하고 다음날 강독을 준비하느라 그다지 시간이 남지 않았다.

Part II의 마지막 날에는 강독을 마치고 브롱코스트 교수와 함께 강가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사진 1 참조) 이때 브롱코스트 교수에 대해 개인적으로 조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는 무척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참석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대화를 이끌어 갔다. 이 점심 식사를 마지막으로 Part II의 참가자 상당수가 Part III에 참여하지 않고 떠났다. 사실 라뜨나까라 강독회의 참가자 수는 항상 유동적이었다. Part II를 다 끝마치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었으며 강독이 한참 진행되는 중에 합류하는 사람도 있었다.

Part III의 시작을 앞두고 마히돈 대학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도착하였다. 아이작슨 교수 지도하에 함부르크 대학에서 공부하고 계신 운산, 원서, 혜용 스님 그리고 특히 세계 각지에서 연구하고 있는 일본 학자들이 많이 모인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 가운데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카타오카 케이(片岡 啓), 모리야마 신야(護山 真也), 카노 카즈오(加納 和雄) 교수도 있어 놀라웠다.(사진 2 참조)

Part III를 맡은 함부르크 대학(Hamburg University)의 아이작슨 교수는 산스크리트에



사진 2 라뜨나까라 강독회 Part III 참가자 단체 사진

대한 그의 천재성과 인도학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가 다루는 분야는 13세기 이전 남아시아의 만트라(Tantra) 전통, 특히 금강승(Vajrayāna) 불교와 고전 산스크리트 시문학, 고전 인도 철학, 뿌라나(Purāṇa) 문헌, 고전 인도 문헌학 등 방대하다.

아이작슨 교수와는 즈냐나스리미뜨라의 『유형상有形象 증명론』(Sākārasiddhīśāstra)의 세 번째 챕터인 「중(관) 입문」(Madhyamāvātāra)을 읽었다. 즈냐나스리미뜨라는 비끄라마실라(Vikramaśīla) 사원 출신 승려로 라뜨나끼르띠(Ratnakīrti)의 스승이자 라뜨나까라산띠의 논적으로 알려져 있다. 유식학파에 속하는 학자로서 불교의 최후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의 저술인 『유형상 증명론』은 그 이전의 길고 긴 논의들을 함축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에 더해 그의 “괴팍한” 문체 때문에 그의 저작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강독 시작부터 어려운 문헌일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강독을 진행하면서도 풀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히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헌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난해함에 기인한 탓인지 여태껏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던 이 문헌을 읽기 위해 전 세계에서 우수한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모여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면 무언가 감동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

Part III에서 아이작슨 교수의 강독이 끝난 오후에는 마히돈 대학의 겔로프(Torsten Gerloff) 박사가 오전에 했던 강독의 복습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오후에 진행된 자율적인 강독 프로그램에서 참석자들은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하며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도학의 다양한 분야에 조예가 깊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견문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오후 강독에서 기억에 남는 참석자로는 쿤탈라 밧따짜리아(Kuntala Bhattacharya) 교수가 있다. 밧따짜리아 교수는 니야야(Nyāya)와 불교 철학을 주 분야로 하는 학자로 우다야나(Udayana) 등 즈냐나스리미뜨라와 관련이 있는 니야야학자들의 문헌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유형상 증명론』의 이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태국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러운 편이었다. 일단 전반적인 비용이 저렴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 숙소의 경우 주최측에서 추천해준 숙소(Bundit Home)에서 대부분의 참여자가 머물렀으며, 숙소가 학교에서 조금 멀기는 하였지만, 숙소에서 통학차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식사도 점심은 보통 대학의 학생 식당에서 해결하는 편이었고, 저녁은 숙소 근처의 식당에서 먹었는데, 태국 음식의 경우 몇 가지가 향신료가 너무 강한 것 빼고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었다. 또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주변 식당을 소개해주거나 도서관을 안내해 주는 등 도움을 주기

도 하였다.

매일매일 강독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부족한 편이기는 했지만, Part III가 진행되던 기간의 주말에는 시간을 내어 방콕에 가기도 하고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불교 국가이다 보니 사원이나 불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방콕에서는 사원과 궁전을 방문하고, 배낭여행객들의 성지라 불리는 카오산 로드(Khaosan Road)에도 방문해 보았고, 또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방콕의 짜뚜짜 시장(Chatuchak Weekend Market)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강독이 끝난 마지막 날에는 우연히 아이작슨 교수와 모임의 주최자인 살비니(Mattia Salvini) 교수와 점심을 함께 한 후 센트럴 살라야 몰(Central Salaya Mall)에서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는데, 그 영화가 'Pacific Rim'이라는 로봇과 괴수 사이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어서, 웬지 카타오카, 아이작슨 교수와 같은 저명한 학자들과 이런 유치한 영화를 보는 장면이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날, 세계 각지에서 모인 만큼 모두의 비행 일정도 제 각각이라 한 명씩 따로 숙소를 나섰고, 서로 배웅하는 모습 속에 무언가 애뜻함이 묻어났다. 개인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산스크리트 문헌과 씨름하던 사람들은 태국의 이국적인 환경 속에서 낯선 텍스트를 마주하였고, 그들이 이제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가 더욱 치열하게 “산스크리트들”과 대면하겠다는 묘한 표정으로 작별인사를 나눈다. 그 표정 속에는 내년 봄에 열리는 라뜨나까라 강독회에서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보자는 무언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